늘어나는 약의 재앙원인을 따져보니…

조제 감기약 먹고 숨져

이 약은 56년부터서 독에서 제조되어 팔리기 시작한 「탈리도마이드」 제제로서 진정작용과 수면작용이 강한데다가 특히 임신구토증에도 효과가 좋아 임신부들까지 이 약을 물론 정·수면제로서는 마구 복용했던 것이다.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으로 서독에서만 최소한 1만명의 회생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약화의 폐해(弊禍)는 염정난치는 취급자의 실수에 의한 약화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많은데 지난 73년 10월 부산 금정약국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예로 약사 K씨가 조제해 준 감기약을 먹은 세명의 환자가 잇달아 숨진 사건이다. K씨가 조제해 준 감기약의 내용물은 칼피날, 아니렌신, 칭강탄산칼슘 등으로 이자체는 치명적인 요소를 찾아볼수 없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탄산바륨이 탄산칼슘으로 둔갑해 잘못 포장됨으로써 야기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약화사건·사고는 미국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사건(82년), 과철염 치료제 「조맥스」 사건(83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로서는 포도당주사약인 「후루멕신」 파동(47년)과 함성마약인 「메사돈」 파동(65년)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약화사건은 금도 세계도처에서 끊이지 않고있다. 약이 있는한, 그리고 질병이 있는한, 한 약화는 있을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 국내에서는 약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국의 통계에 의하면 종합병원에서 1백투약화가 하나 꼴로 하며 병원 및 약국을 포함하면 7~8투약에 하나꼴로서, 약화발생률은 13~15%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전체에서 1천만의 투약이 하루에 어진다고 할 때 하루 1백50만건이나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흔히들 「약은 독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 용량이 문제이지 따지고 보면 독이아닌 물질은 없다. 아무리 잘 써야 잘못 쓰면 독인것이지 잘못 쓰면 독인것이 술에 들어있는 알콜도 지나치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해독기능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어결국은 간기능을 떨어뜨리고 위산분비를 적극해 위염이나 위궤양등의 병을 유발한다는것은 우리가 잘 아는일이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약은 무엇인가. 약은 화학적인 물질이면서생물학적으로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도는 모든 약이 효과가 높고 안전성을 지녔다고는 볼수 없다. 예기치 못했던 유해반응이나 부작용 때문에 원래의 투여목적과는다른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약화라는 표현을 쓰게되는데 그러한 부작용을 써 열무에 두고 약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약품의 부작용을 예로 들어보자. 우선 항생제는 과민반응, 교대감염(항생제 투여로 균은 죽으나 그 약제에 새로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 지닌 균종이 잠복화감염, 약제자체의 독성 및 내성균(耐性菌)의 유발등에 의해 민반응은 중요한 문제로 작용되는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한 부작용은 심각한 유해반응을 보인다.

○… 1960년에서 61년사이 서독에서는 물개팔(海豹肢症)…○
○…을 가진 기형아가 잇달아 태어나 온 나라가 공포로 들…○
○…끓은 적이있다. 그 2년 전까지만해도 이런 기형아 출…○
○…산은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 59년에 17건, 60년…○
○…에 1백26건, 그리고 61년에는 4백77건이나 발생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풍진바이러스나 피임제가 원인이 아…○
○…닌가 하였으나 한 의사의 앙케이트조사결과 이들 기…○
○…형아출산산모의 절반가량이 「콘테르간」이라는 약을 먹…○
○…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앞에선 항상 겸허해야한다

약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지적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가되지 않은 것은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킨 FDA(식품의약국)의공이 아닐 수 없다. FDA는 이 약이 감상선기능저하와 신경염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판매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몇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신약에 대한 부작용을철저히 체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약화는 치료목적으로 썼으나 예기했던 또는 예기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수가 대부분이지만 사용자의 오용과 남용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약을너무 맹신하는 데다 약을 무서워하지 않기때문이다. 여기에는 제약회사의 무책임한 광고나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의 현실이 개재되어 있다. 집에서 쓰는 명만원짜리 가전제품도 고장이 나면 근처의보수센터에 맡기면서도자기몸에 생긴 고장은제스스로 처방하고 구입하고 투약하는 것이우리의 관습이다.

의약품광고를 보면그 마음이 안 생길수도 없을 것 같다. 같은 병이라도 증상에따라 개인에 따라 약이 다르고 약의 효과도다른 것인데, 이들 광고를 보면 전부가 어디 어디 아픈데 좋다는식이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주구매욕을 충동하는 현대적인 판매전략일지는 모르나 약까지 신발이나 라면선전하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약을 파는 곳도 마찬가지다. ○○제약의×요구에증약을 달라는 ○○제약의 요구에증 정식한다.

〈정화지 2000년에서 발췌〉

淨化特輯

園藝 栽培教室

87新規會員을 爲하여

풍=風) 방=(防

○學 名: Siler divaricatum Benthamet Hooker
○生藥名: 元防風, 眞防風
○成 分: 精油
○効 用: 驅風, 發汗 및 祛痰藥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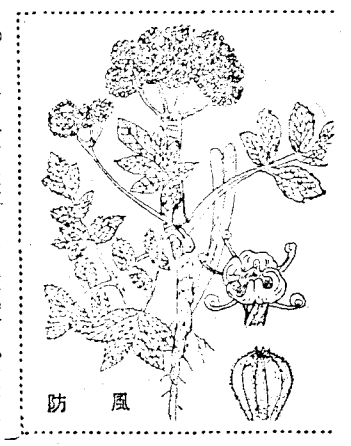
1、性 狀

①防風(범풍나물)
中國 原産의 미나리科에 속하는 多年生草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中南部 지방에서는 별로볼수 없고, 北部지방에서 재배 生産되고 있다.

草長은 1m 정도이며 잎은 깃모양으로 세번갈라진 겹잎이고 갈라진 잎은 披針形으로서 잎끝은 날카로워 보인다.
7~8월경에 複繖形花序로서 가지 끝에 白色의 많은 꽃이 모여 피며 가을에 結實하게 된다.
그 뿌리는 黃色이며 紡錘形이다.

②濱防風 Phellopterus littoralis Benthamet
土防風 또는 海防風이라고도 하는데 갯가 모래 땅에 自生하는미나리科에 속하는 多年生 草本이다.
草長은 30cm 내외이며 잎은 두번 세 갈래로 갈라진 겹잎이고 갈라진 잎은 卵形 또는 楕圓形이다.
6~7월경에 複繖形花序로서 白色의 작은 꽃이 많이 모여 핀다.

③갯기름 나물(牡丹葉防風)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이 防風은 山防風또는 石防風이라고도 하는데 갯가에 自生하는 2~3년생 草本이다.
草長은 60~90cm 에이르며 잎 뒤에는 흰빛이 있으며 6~7월에 複繖形 花序로서 白色의 작은 꽃이 많이모여 핀다. 8~9월경에 결실한다.


防 風

2、栽培法

①栽培 適地
우리나라 中南部 지방에서는 어디서든지재배할 수 있으며 土質은 適濕한 砂質壤土에 가장 잘 자란다.

②繁 殖
번식은 種子로서 하는데 直播法과 育苗移植으로 한다.

㉮直播法: 直播法은보통 아주 비옥한 土壤에 施肥를 많이 하고 當年에 수확코저 할때 直播하는데 土壤條件과 地方에 따라서는春播하는 것보다 秋播하는 것이 뿌리의 肥大를 圖謀할 수 있다.
直播할 때는 두둑사이 40cm 정도의 간격으로 골을 치고 드물게 條播를 하는데 直播할 때의 播種量은 10a에 3·6ℓ가 필요하다.

㉯育苗 移植法: 育苗할때는 보통의 밭에 1·5~1·8m 넓이의 모판을 10a에 대하여 33㎡(10평)을만들어 撒播하되 씨를배게 뿌리고 施肥 또는 속음질할 것 없이 生育을 억제하여 苗를 矮小細長하게 길러서다음 해의 抽苔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때의 播種은 秋播보다는 春播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播種量은 보통 2·5ℓ 정도 所要된다. 播種 후의 覆土는 1cm 정도 被覆해주고 짚등으로 해주면 20~30일 후에는 발아하게 된다.

③定 植
本圃에 定植할 시기는 가을은 10월, 봄은 3월 하순경이다.
별로 基肥를 施用하는 것도 척박한 땅에는 堆肥 1,000kg, 草木灰 50kg 정도를 주고 정지한 다음 45cm 간격으로 15~20cm 사이 포기 이랑을 만들고 보통 2~5ℓ 정도 施用한다.

④肥培 管理
直播한 것은 發芽후 적당히 솎아주고 追肥로서 人糞尿를 2~3회 施用하는 것이 좋다.
育苗 移植한 것은 莖葉이 자라는 것을 보아 生育 初期에는 肥料를 별로 주지 않고 8~9월경에 肥効가나타나게 하는것이 좋다.
그 이유로서 育苗移植한 것은 生育이 초기부터 왕성한 것은 대부분이 抽苔가 되기쉽기 때문이며 抽苔가된 것은 뿌리가 木質化되어 藥用으로 불리한것이다.

3、收穫·調製

10~11월경에 캐어서 물에 씻고 굵은 뿌리는 길이로 쪼개고, 잔뿌리는 물에 씻어 그대로 건조시켜 調製한다.
10a의 收量은 當年에 수확한 것은 100kg 정도이며 育苗移植한 것은 150kg 정도이다.